

해외 주요 뉴스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미국 공화당이 의회 하원 다수석을 차지한 상황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 짚어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자 ESG를 선도하고 있는 블랙록(Blackrock)에 대한 모든 금융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의 지지를 얻고 있는 플로리다 주는 ESG 관련 활동을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들이 전통적인 금융 투자 분석 방식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인권 및 사회 이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투자 펀드 관련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01

하원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ESG 관련 조사를 시작할 예정임 관련 기사

법률/재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를 차지하게 된 공화당은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이슈에 대한 의회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위 ESG 조사는 ESG 투자를 이끄는 주요 금융기관, 펀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
- 또한 하원 조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와 같은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SEC는 최근 의무적 기후변화 관련 위험 공시 규칙 최종안을 내놓았으며 ESG 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기타 공시 규칙도 발표했음.
- 내년 1월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 될 예정임. 전문가들에 따르면 맥헨리 의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해 SEC의 규칙 입안 등과 관련하여 ESG 감독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02

플로리다주, ESG 이슈로 인해 블랙록에서 20억 달러 투자 회수

플로리다주 재무부는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ESG 펀드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에 대한 처분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플로리다주 재무부는 플로리다주의 수탁은행에 약 1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장기 증권 자산을 동결하고 약 6억 달러 규모의 오버나이트(초단기) 투자 자산과 관련하여 투자운용사 지위에 있었던 블랙록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음.
- 플로리다 재무부 장관은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이끌며 지나치게 ESG 기준에 치우쳐 있다고 언급했음.
- 블랙록은 플로리다주의 장기 포트폴리오 중 14억 3,000만 달러를 운용해왔으며, 기업 책임, 자산유동화 증권, 지방채 등의 투자처에 위 자산을 운용함.
- 블랙록은 또한 플로리다 재무부의 6억 달러 규모의 단기 투자펀드를 독점적으로 감독함. 위 투자펀드는 장기, 중기 및 단기 운용사들이 매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캐시 스왑 펀드임.
- 플로리다 금융서비스부는 납세자의 세금 약 600억 달러를 운용함.

03

유엔 책임투자원칙, 30조 달러 규모 투자자들이 서명한 인권 관련 성명 발표

유엔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은 최대 규모의 사회 이슈 및 인권 관련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에는 자산규모 30조 달러의 220개 기업 또는 투자자들이 서명했습니다:

- “어드밴스(Advance)”라 알려진 이니셔티브를 구성한 것으로도 알려진 UN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은 각 투자자들이 인권 이슈의 긴급성과 체계적인 성격을 인정하는 성명서에 각 투자자들이 서명했다고 밝혔음.
- 광산업, 금속업 및 재생에너지업 분야는 이번 이니셔티브가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분야임.

2

- PRI CEO는 “PRI가 투자자들에게 좀 더 야심찬 스튜어드십으로 나아가고 인권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히며 “전 세계적 불평등과 수 세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파괴 방지에 이르기까지, PRI는 ‘어드벤처’가 노동자, 공동체,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음.

04

코로나19 기간 동안 글로벌 체인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세계화의 단점이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 국제경영학저널(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에 실린 “세계화의 어두운 면: 코로나19사태가 다국적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거들”이라는 제목의 연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의 주가는 국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비해 1.7% 더 감소했음.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국내 기업보다 주가가 4.5% 상승했음.
- 연구에 따르면 주가에 가장 타격을 받은 다국적 기업은 내구재, 제조업, 석유 및 가스 산업이었음.

기타뉴스

- 임원 보수 컨설팅 기업인 더 컨퍼런스 보드(The Conference Board)와 셴러브로시(Semler Brossy)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CEO 보수와 ESG 요소를 연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2021년 기준 S&P 500대 기업 중 73%가 임원 보수와 ESG 관련 성과를 연계했으며, 이는 2020년 66%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ESG 센터 전문가 칼럼

- [기업과 사회] 직원은 자원인가? 자본인가? 더 나은 미래, 2022. 12. 7.
 (임성택 대표변호사) 인사팀이 없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다. 대신 피플팀(People), 피플앤컬처 팀 (People&Culture), 토틀런트팀(Talent), 성장관리팀, 해피릴레이션팀(Happy Relation) 등이 등장했다. 명칭 만큼이나 실제로 사람을 존중하고 직원의 재능을 살려주며 행복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회사가 많아지면 좋겠다.

법무법인(유) 지평 ESG 센터/ FiscalNote Korea Contact

임성택 ESG 센터장 / 대표변호사	T. 02-6200-1746	E. stlim@jipyong.com
민창욱 파트너변호사	T. 02-6200-1841	E. cwmin@jipyong.com
손민경 FiscalNote Korea 대표	T. 010-3809-1592	E. liz.sohn@fiscalnote.com